

[12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얼음 깨기

당신의 인생찬양은 무엇인가요?

요즘 '인생00'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인생사진, 인생음식, 인생네컷 등의 말이 유행하고 있죠.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알게된 찬양, 처음 가슴에 와닿은 찬양, 여러분의 인생찬양은 무엇인가요?

1. 예수를 믿고 처음 알게 된 찬양이 기억나시나요? 무엇인가요?
2. 처음 가슴에 와닿은 찬양은 무엇이었나요?
3.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교회행사

11월

2일	세례문답식, 신임투표
3일	세례식
10일	성찬식
17일	2기 더가족세미나 시작

12월

5-7일	교회 감장
8일	더가족세미나 수료
15일	여전도회 총회
24일	성탄전야
25일	성탄
31일	송구영신예배

경배 찬양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교

[이화남 선교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1. 교회 및 사택 건축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2. 유치원 및 돌봄 센터를 위해 실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 코로나 기간 동안 흩어진 교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소식

1. 2025년 예산 공동의회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는 12월 18일 수요일 수요 말씀과 기도 후에 진행됩니다. 회원(2024년 9월 18일 이전 등록된 세례교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굿월센터 정기총회

굿월센터 이사회와 정기총회가 12월 14일(토) 오후 3시와 5시에 굿월센터 2층에서 진행됩니다. 회원은 참여해주시고, 참석치 못할 경우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위임장을 통해 의결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기총회

안수집사회가 다음주 주일 오후 4시 1층 노아의 방주홀에서, 총여전도회가 다음주 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각각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참여해주세요.

한 문장 큰 울림

쉬운 길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염려하라

- 조니 에릭슨 타다 -

[암 4: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본문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비꼬고 계십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어'라는 마음으로, 자기 만족에 취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1. 심판을 막으려는 고난

6-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더 큰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재난을 허락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너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사람을 보시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기회를 주고 계셨다.

2.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암 4: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너희를 만하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공의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

[암 5:7] 정의를 쓴 축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와 정의가 더는 가동하지 않는 사회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어서 5장 10절에서 13절은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정의가 가진 자의 손에 넘겨지고, 성소만 나서면 무법자가 되는 사람(부자, 지도자)들로 인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분배 대신 착취만 남은 폭력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이를 목격한 목격자도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는 무도한 세상이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집이나 포도원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일어났던 이 불의한 일들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4.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암 5:14-15]

14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당시 성문은 법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 그들은 그 기회마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5.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 같이

[암 5:2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교제의 만남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기로에서 있습니다.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나눔] 내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 이해되시나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나눔] 우리 삶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